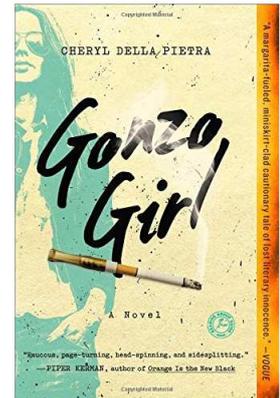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GONZO GIRL
가제 : 곤조 걸
저자 : Cheryl Della Pietra
출판사: Touchstone
발행일: 2016년 4월 19일(2판)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 현대 소설



- * 영화 제작 예정, 독일 판권계약 체결
- * “놀라운 상상력과 정신 나간 장난, 툭툭 튀는 대화를 생생하게 잘 버무린 소설”- 「라이브러리 저널」
- * “악마인 동시에 천사였던 보스, 멘토를 요란스럽게, 흡입력 있게, 머리가 빙빙 도는 이야기와 배꼽 잡는 일화로 그려낸 데뷔 소설.”- 「Orange Is the New Black」의 작가 파이퍼 커먼

‘곤조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미국의 괴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헌터 S. 톰슨 (Hunter S. Thompson)이 2005년, 권총으로 자살했다. 저널리즘의 생명은 철저히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인식에 강력히 반대하고 기자가 취재 대상과 직접 부대끼고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한 생생한 이야기를 보도하는 방식을 택한 그는 이 같은 취재 방식에 곤조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찾아 다니고 현장에 뛰어들어 마약, 술로 범벅이 된 퇴폐적인 삶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독특한 저널리스트 밑에서 수개월간 조수로 일했던 작가는 당시의 충격적이고 놀라운 경험을 토대로 데뷔 소설을 완성했다. 20여 년을 실제로 콜로라도 산 속에 틀어박혀 온갖 기행을 일삼아온 실존 인물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소설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시끌시끌하고 숨실 틈 없이 웃음과 충격을 안겨주는 별난 이야기로 그려냈다.

스물 두 살, 갓 대학을 졸업한 작가 지망생 엘리 루소는 뉴욕 뒷골목에서 바텐더로 겨우 생활비를 벌면서도 어떻게든 글 쓰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배관공으로 일하는 아버지 사무실에서 경리나 하지 않으려면 혼자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뉴욕의 으리으리한 출판계에 엘리가 들어설 자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소식이 엘리의 귀에 들어온다. 워커 리드, 그 유명한 소설가가 신작을 준비 중이며 조수를 구한다는 것이다. 이미

여덟 명이나 그 자리에 도전했다가 그만뒀는지 잘렸는지 알 수 없지만 돈 한푼 받지 못하는 잡지사 인턴 외에 제대로 된 자리를 얻지 못했던 앨리로서는 찬밥 더운밥 가릴 신세가 아니었다. 출판계에 연줄이나 지인 하나 없는 앨리는 이 걸출한 작가의 책상 위에 자신이 공들여 쓴 글을 올려놓고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 기회를 단단히 붙들리라 다짐하며 용감하게 워커 리드의 조수를 자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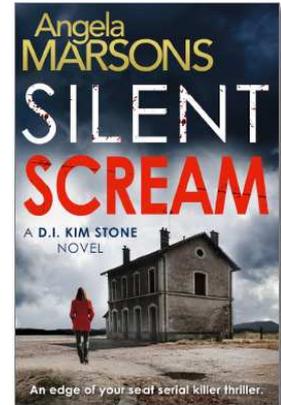
콜로라도 산 속에 자리한 워커의 저택에서 3일간 일종의 면접 겸 심사 기간을 거쳐야 했던 앨리는 매그넘 권총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격한 감정을 표출하는 작가의 코카인과 술, 여자에 찌든 삶을 목격하며 큰 충격에 빠진다. 이 혼란을 지켜보고도 조수로 일할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던 앨리에게 뜻밖에도 면접 통과 소식이 전해지고 앨리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본격적인 워커의 보조 일을 시작한다. 출판사에서 원하는 분량을 어떻게든 얻어내기 위해, 하루에 제발 두 페이지만 써 달라고 워커를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꼬드기는 작업이 시작됐다. 빛에 허덕이면서도 돈을 펄펄 써대고 글 쓰는 일에는 별 관심도 없이 취미 삼아 총이나 싸 대는 워커는 ‘영감’을 얻어야 한다며 앨리에게 옷을 더 섹시하게 입으라고 요구하질 않나, 자신과 함께 약에, 술에 취해보자고 음박을 지르기도 한다. 이 끝도 없는 혼란 속에서 몇 개월을 보내며, 앨리는 문학계의 우상인 줄 알았던 워커의 실체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물을 짝 짝 뱉어내는 워커를 보고 실망과 좌절감에 괴로워하던 앨리는 결국 출판사로 보내기 전, 그가 쓴 글을 고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의 멘토가 되어 주리라 믿었던 워커는 절대로 새로운 작품을 완성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앨리의 삶도 어쩌면 이 지점부터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는지도 모른다.

실제 경험이 녹아 있는 생생한 이야기가 재미를 더하고 출세 지상주의에 찌든 사람들의 안타까운 고통과 처절한 몸부림이 묘한 감동을 안겨주는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세릴 델라 피에트라(Cheryl Della Pietra)는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에 저널리스트 헌터 S. 톰슨(Hunter S. Thompson)의 조수로 몇 개월간 일했다. 「New York City」 매거진에서 편집자, 작가, 교열 담당자로 오랜 세월 일해왔으며 「마리끌레르」, 「레드북(Redbook)」 등 여러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SILENT SCREAM
가제 : 침묵의 비명
저자 : Angela Marsons
출판사: Bookouture
발행일: 2015년 2월 20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소설/ 범죄스릴러



- * 전 세계 **86만부** 판매된 시리즈 첫 권, 시리즈 **5권 총 판매부수 160만부** 돌파
- * **2015년**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한 달 이상 **1위**
- * 수십 만 달러 규모로 독일 판권계약 체결, **20개** 언어로 번역되어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러시아, 베트남 등 **19개국**에 판매

꺼내 놓기엔 너무 무거운 과거를 지닌 여경찰이 잔인한 살인 사건을 독심 있게 해결해 나가는 '김 스톤 경위 스릴러 시리즈'가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15년 영국 아마존에서 판매된 모든 상품을 통틀어 베스트셀러 5위에 포함되고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5위, 캐나다와 호주, 이탈리아 순위에서도 최대 3위, 최저 10위 안에 진입한 이 화제의 범죄 스릴러 시리즈는 웃음기를 싹 뺀 여주인공 김 스톤 경위가 자신의 과거에 지나치게 심취하거나 노골적으로 그 상처에 허우적대는 대신 오히려 무슨 일을 겪었는지 하소연하지 않고, 잔혹한 범죄를 끝까지 진지하게, 세밀하게 파헤치는 과정을 그리며 다른 '상처 입은 영웅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5권까지 출간되어 160만부가 넘게 판매된 이 시리즈는 총 16권까지 나올 예정이며 2015년에 나온 이 책 『SILENT SCREAM』은 그 첫 번째 이야기다.

2004년, 끔찍한 블랙 카운티의 어느 외진 곳에 다섯 명이 모였다. 저마다 손에는 삼을 들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한 이들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주저하면서도 쉬지 않고 흙을 들어냈다. 이들이 파낸 구덩이에는 생명이 끊어진 죄 없는 누군가의 육신이 담기고, 다섯 명은 조용히 그 속에 시체를 묻은 뒤 흙과 함께 앞으로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될 자신들의 비밀을 묻어버렸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던 비밀은 오랜 시간이 지나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저녁 뉴스에 보도된 사건 때문에 이틀째 마음이 혼란스러워진 테레사는 벌써 몇 년째, 작은 생각만으로도 쿵광대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옥조에 몸을 담갔다. 존경 받는 사람이 된 자신을 자칫 지금의 명예 대신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릴지도 몰랐던 그 사건,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 시작한 그 비밀은 이미 땅속에 묻힌 지 오래지만, 뉴스는 겨우 잠재우며 살던 테레사의 양심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문득 다른 이들도 비슷한 감정일까 궁금했다. 복잡한 마음으로 따끈한 물에 몸을 누인 테레사는, 침묵에 잠긴 집 안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스스로 들어간 옥조에서 마지막 숨이 사라진 테레사는 긴 시간 땅에 묻힌 비밀이 드러나는 신호탄이 되었다.

여교장이 자신의 집 옥조에서 익사체로 발견되고, 한 남자가 역시나 자신의 집 부엌에서 목이 거의 잘려나간 상태로 발견되자 무뚝뚝한 형사, 킴 스톤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사교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친구라곤 함께 일하는 브라이언트 형사가 유일한 그녀가 관심을 갖는 건 단 하나, 억울하게 고통 받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음흉한 범죄자의 손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데 골몰하는 스톤을 수사팀 식구들 모두가 깊이 존경하며 까다로운 지시도 순순히 따른다. 그 어떤 잔인한 사건도 척척 해내던 그녀지만, 피해자가 두 명째 발견된 이번 살인 사건은 심상치가 않다. 첫 번째 희생자인 여교장이 살던 건물 현관에는 누군가 불을 지른 흔적이 발견된다. 실오라기 같은 단서도 남기지 않으려는 범인의 치밀한 계획으로 보이는데, 무엇이 두려워 이런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웠는지, 윤곽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오래 전 문을 닫고 방치된 어느 보육원 땅에서 사람의 뼈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하나 둘 죽은 채 발견된 사람들, 처음에는 무작위로 선택된 것만 같았던 이들이 모두 그 보육원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어릴 때 버려져 다른 아님 보육원에서 살아야만 했고 그 시절, 도저히 꺼낼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스톤 경위는 아이들을 폭력과 고통으로 몰고 갔을 버려진 보육원의 실체를 벗겨내기 시작한다. 원치 않아도 솟구치는 과거의 기억과 싸우며 범인을 찾아가는 그녀 앞에 이기적이고 철저히 계산적인 어른들의 일그러진 진실이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낸다. 2권 『Evil Games』, 3권 『Lost Girls』, 4권 『Play Dead』, 5권 『Blood Lines』로 이어지는 16부작 킴 스톤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로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인물들, 탄탄한 스토리가 매력적인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앤젤라 마슨스(Angela Marsons)는 위 작품의 무대가 된 잉글랜드 버밍엄 서쪽, 블랙 카운티에서 나고 자라 10대 시절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 : THE WHICH WAY TREE

가제 : 나무가 알려주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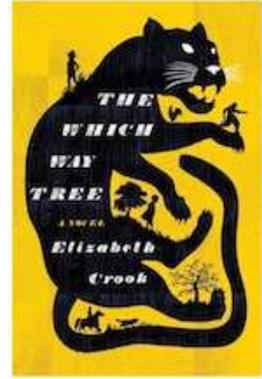
저자 : Elizabeth Crook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8년 2월 6일

분량 : -

장르 : 소설/ 어드벤처, 가족 소설



*** 베네수엘라 출신 감독, 알베르토 아르벨로가 영화로 제작할 예정**

***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 시기를 무대로 퓨마를 잡기 위해 용감하게 나선 두 이복남매의 모험**

1866년, 텍사스 주 작은 카운티 법정에서 열일곱 살짜리 소년 하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몇 년 전, 새벽 사냥에 나섰다가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을 처음으로 목격한 소년은 판사의 질문에 거리낌 없이 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재미 있는 사실 하나가 새롭게 등장한다. 소년이 목격한 가해자의 손가락을 여동생이 권총으로 쏘아버렸다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진술에 판사는 흥미를 느끼고, 시간 관계상 소년과 수년째 잡지 못한 가해자, 그리고 소년의 여동생 사이에서 벌어진 그간의 일들을 서면 진술서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한다. 짙은 법정 진술로 문을 연 소설은 이렇게 해서 진술서의 형태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 속에 벤자민이라는 이름의 겁 없는 소년과 그보다 훨씬 대담하고 성질이 불같이 고약한 이복 여동생, 사만다의 기막힌 사연이 담겨 있다. 2013년 국내에 개봉된 영화 '리버레이터(The Liberator)'를 만든 베네수엘라 출신 감독, 알베르토 아르벨로를 통해 영화로 제작될 예정인 이 소설은 시종일관 흥미를 자아내는 두 혈기 넘치는 남매의 모험담과 이들을 둘러싼 개성 만점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혼란스러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펼쳐진다.

벤자민은 남부연합군과 북군 사이에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절, 애리조나 주 캠프 베르데라는 작은 마을에서 여동생과 둘이 살고 있는 집을 새벽 일찍 나섰다. 마을 안쪽에 죽치고 주둔한 군대들 때문에 사냥감이 없어 그 날 따라 집에서 20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줄리안 크릭까지 말을 타고 사냥에 나선 벤자민은 찾으려던 동물 대신 뜻밖의 장면을 목격한다. 군인 한 사람이 코요테 때에 둘러싸여 있는데, 곁에 총이 있는데도 그 맹수들을 쏘지도 않고 뭔가 기다란 것을 들고 휘두르면서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이였다. 게다가 그 남자는 입으로 개나 늑대가 우는 소리까지 흉내 내는 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혹시나 산속 인디언들이 튀어나와 해칠까봐 풀숲에 몸을 숨기고 그 남자를 유심히 살펴보던 벤자민은, 그 군인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장작이나 나뭇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건 잘려나간 사람의 팔이었다.

무엇이 범죄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벤자민은 그 충격적인 사건을 아무데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하필 그 이상한 군인과 또 엮이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한 번 열 받으면 폭발해야 직성이 풀리는 무서운 여동생, 사만다와 나무 위에 앉아 있는데 그 군인이 낙타를 칼로 쿡쿡 찌르며 괴롭히다가 사만다 눈에 딱 걸린 것이다. 퓨마를 잡으려고 하루 종일 나무 위에서 기다려도 나타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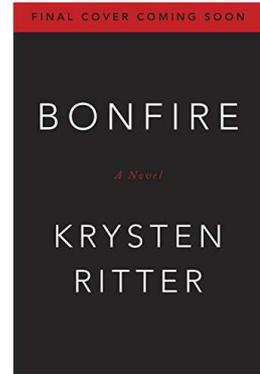
않아 그럴지 않아도 짜증이 나 있던 사만다는 그 잔인한 군인을 향해 권총을 쏘고, 그 바람에 남자는 손가락 한 개를 잃고 만다. 그런데 왜 하필 퓨마가 이 불 같은 성미의 사만다에게 사냥감으로 딱 걸린 걸까? 사만다가 겨우 여섯 살이던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눈앞에 나타난 퓨마는 그 자리에서 엄마를 죽이고 말았고 어린 사만다는 그 잔혹한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만 것이다. 그 일을 절대 잊지 못한 사만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못된 동물을 잡아죽이고 말겠다는 열망으로 매일 퓨마가 나타날 만한 장소에서 죽치고 기다렸다.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는 다른 벤자민과 사만다, 두 남매가 텍사스 힐 카운티에서 돌봐주는 어른도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퓨마라는 의외의 사냥감으로 인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멕시코에서 온 범죄자 파체코라는 남자와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목사님, 사만다 못지 않게 한번 물면 절대 놓치는 법이 없는 목사님의 애완견 재커리, 그리고 벤자민의 눈에 처음 띈 그 날부터 남매와 계속 악연으로 엮이는 북부연합의 군인 클라렌스 헨리 등 특이한 인물들이 두 남매의 주변에 계속해서 등장하며 자잘한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사만다의 엄마를 죽인 퓨마는 그냥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성질이 유독 사납고 잔인하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지독한 동물이었다. 하필 그 퓨마를 잡겠다고 나선 사만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 무모한 도전에 따라 나선 오빠 벤자민의 유쾌하고 강렬한 이야기에는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순수한 열정을 쏟아 붓는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진한 감동이 담겨 있다.

<저자 소개>

엘리자베스 크룩(Elizabeth Crook)은 미국 서부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장르소설을 발표해 왔다. 과테말라 산 마르코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베일러 대학교, 라이스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2014년에 발표한 소설 『Monday, Monday』를 비롯해 『The Night Journal』, 『Promised Land』, 『The Raven's Bride』를 썼다.

제목 : BONFIRE
가제 : 모닥불
저자 : Krysten Ritter
출판사: Crown Archetype
발행일: 2017년 11월 7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 심리스릴러



- * 미국의 영화배우 겸 프로듀서, 모델, 작가 크리스틴 리터가 처음으로 완성한 소설
- *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비밀스러운 사건과 비리, 강렬한 여주인공이 이끌어가는 스릴과 긴장감 가득한 이야기

아름다웠던 엄마가 골암으로 서서히 죽어간 기억도, 친구 하나 없이 늘 악몽에 시달려야 했던 시간도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차츰 희미해졌을 때, 애비는 펜실베니아 구석진 시골 고향으로 돌아왔다. 밤에 시작되는 악몽보다 더 끔찍했던 옛 시절의 악몽을 모두 떨쳐내고 시카고에 새 동지를 꾸린 애비는 환경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로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다. 책장만 열 개가 넘는 커다란 아파트, 한가할 때면 고급스러운 바에서 함께 웃고 떠들 친구들,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남자와의 가벼운 사랑은 낙인처럼 지워지지 않을 줄 알았던 과거의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하필 떠나온 지역의 대형 업체가 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방류했다는 혐의에 휩싸이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베런 카운티로 향한 애비는 믿기 힘든 사실과 맞닥뜨린다. 자신을 그토록 못살게 굴던 동급생, 어릴 때만 해도 가장 친한 친구였던 케이시의 불가사의한 실종 사건이 애비가 조사하려는 사건과 맞물려 있었다.

첫 징조는 고등학교 마지막 해, 어느 때와 다르지 않았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케이시는 소위 '일진'이었고 무조건 케이시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비롯한 이 요란스러운 집단은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했다. 케이시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리더였다. 추종자들은 케이시의 손짓 하나까지도 모두 따라 할 정도였으니 아무도 대범하게 그들과 맞서지 못했다. 교실에서 모의 선거 수업이 한창이던 그 날, 최종 후보에 오른 케이시는 당당하게 교단 앞에 서서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다. 텅 빈 앞 좌석을 혼자 지키고 있던 애비는 한때 하루 종일 붙어 다녔지만 이제는 자신을 미친 듯이 괴롭히는, 어쩌면 고문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악의적 감정을 쏟아붓고 있는 케이시가 연설하는 장면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다. 그럴 듯한 거짓말로 가득한 연설문을 진심인 척 열정적으로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타고난 거짓말쟁이구나라고 생각하던 찰나, 그 증상이 케이시에게 처음으로 나타났다. 뭔가 목구멍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입술은 움직이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교실에 모인 학생들 모두 케이시가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두 눈이 뒤로 돌아가면서 양손을 허공에 휘젓기 시작하자 깔깔대던 웃음소리가 딱 멈췄다. 턱이 석고처럼 굳어버린 케이시는 그대로 자리에서 쓰러졌고 누군가 황급히 양호실로 달려갔다. 그런데 양호교사

가 도착하기 전에, 케이시의 정신이 갑자기 돌아왔다. 자신을 둘러싼 아이들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하도 굶어서 어지러웠다고 대충 둘러대는 말에 다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3일 뒤, 그 이상한 증상은 또 다시 나타났다. 이어 한 명씩, 케이시를 따르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케이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마을사람 누구도 그녀를 본 적이 없게 된 사건이 이 괴이한 증상과 관계가 있을 줄은, 그 당시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옵티멀 플라스틱’사는 애비의 고향 지역 전체 경제를 쥐고 있는 대형 업체였다. 이곳이 지역민들의 식수원으로도 활용되는 강에 독성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몰래 폐기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조사를 받게 된 애비는 탐탁지 않은 심정으로 이 대형 업체의 실태를 하나하나 파악해가던 중 10년 전 사라진 케이시와 몇몇 아이들이 이 일과 연관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아이들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던 그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세상에 두려운 것 하나 없어 보이던 못된 아이들의 대장, 케이시는 왜, 무슨 이유로 종적을 감추고 그 뒤로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주민들과 만나 그간의 소문과 사건을 조사하던 애비는 “게임”이라 불리는 낯선 의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치러졌다는 이야기를 접한다. 이 장난스러운 이름의 의식이 세상에 알려질 경우, 마을 전체의 명예는 물론 누군가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

거대한 음모를 홀로 굳건하게 파헤치는 애비를 따라가다 보면 온 몸에 전율을 일으키는 반전이 기다린다. 작은 시골 마을, 남의 집 살림살이까지 속속들이 다 알 정도로 너무 가까운 사람들, 서서히 강렬함을 더해가는 긴장감 속에서 이 조용한 마을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마침내 드러난다.

<저자 소개>

크리스틴 리터(Krysten Ritter)는 열여섯 살에 모델로 데뷔하여 영화 브레이킹 배드, 길모어 걸스 등에 출연한 영화배우로 연극과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도 활동해 왔다. 프로덕션 ‘Silent Machine’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2015년에는 마블 코믹스의 만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 ‘제시카 존스(Jessica Jones)’에서 주인공을 맡았다.

NON- FICTION

제목 : THE WORLD BROKE IN TWO

가제 : 두 갈래로 쪼개진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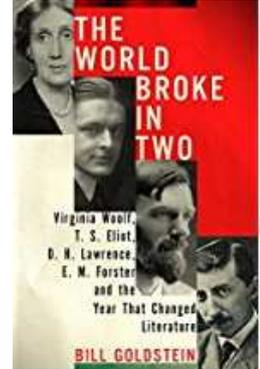
저자 : Bill Goldstein

출판사: Henry Holt and Co.

발행일: 2017년 6월 13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전기/역사



* 버지니아 울프, **T.S** 엘리엇, **EM** 포스터, **D.H** 로렌스, 위대한 문학가들의 삶을 동시에 바꿔놓은 **1922년의 변화를 흥미진진하게 쫓아가는 특별한 전기이자 문학역사서**

* 우수함을 위대함으로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했던 고난과 역경의 과정

“무엇보다 문학이 번창하는, 대단한 시대입니다.” 1922년 1월, 에즈라 파운드는 T.S 엘리엇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소감을 밝혔다. 돌이켜보면 마치 미래를 내다보기라도 한 듯 날카로운 예지력이 담긴 이야기였지만, 그 당시만 해도 편지를 받은 엘리엇은 물론 버지니아 울프도, E.M 포스터나 D.H 로렌스도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말이었다. 새해가 시작되면 늘 그렇듯 사람들은 새로운 각오를 굳히고 빛나는 희망을 다시 꿈꾸며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그러나 20세기를 풍미한 핵심 문학가들로 꼽히는 이 네 사람에게 1922년은 백지가 유독 더 텅 비어 보이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한 상태로 시작됐다. 그러나 연초에 이들이 느낀 좌절감은 뛰어난 작가에서 위대한 작가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되었다. 저자는 신기하게도 네 사람 모두에게 동시에 찾아온 이 극적인 변화의 시기, 1922년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무엇이 다시는 작품 하나 완성하지 못할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깊었던 절망을 문학사에 길이 남을 걸작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살펴본다.

버지니아 울프는 1922년 1월에 마흔 살 생일을 맞이했다. 독감에 걸려 펄펄 끓는 열에 헤매며 잔뜩 겁을 먹은 채 맞이한 생일과 그 이후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쇠약해진 몸만큼 마음도 점점 약해졌다. 그토록 바라고 열망했던 수준의 작품은 도저히 쓸 수 없을 것만 같다는 자괴감이 엄습했다. 그녀의 친구인 E.M 포스터 역시 이미 수년째 소설 하나를 완성하려고 애를 써왔지만 여전히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끄적거리던 소설은 75 페이지에서 멈춘 채 채워지지 않은 종이만 남아 있었다. 1921년은 거의 모든 시간을 인도에서 보내며 미완성된 작품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1922년 3월, 영국에 돌아와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는 여전히 계속됐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상실감까지 더

해져 헤어 나오지 못할 구덩이에 빠진 기분이었다. 버지니아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 T.S 엘리엇은 극심한 신경쇠약으로 1922년을 스위스 로잔에서 요양하며 보냈다. 나중에 「황무지」가 될 시 구절이 단편적으로 떠올랐지만 합쳐지지 못한 채 조각조각 흐트러져 그를 더 애타게 만들었다. 1919년부터 아내와 타오르미나에서 지내고 있던 D.H 로렌스도 큰 집과 푸르른 정원 속에서 마음의 안정은 찾았지만 문학적인 성취 면에서 느끼는 좌절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22년 2월에 『율리시스』가 세상에 나오고, 가을이 되자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영어로 번역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중요한 해에 창의적 능력이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혔다고 느낀 네 명의 문학가는 그 무거운 부담감과 절망을 이겨낸다. 버지니아 울프는 『댈러웨이 부인』을, 포스터는 10년 만에 마침내 소설 『인도로 가는 길』을 완성했고 로렌스는 자전적 소설 『앵거루』를, 엘리엇은 4월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유명한 시 「황무지」를 완성했다. 현대 문학의 시초를 알린 이들의 힘듦,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성과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된 내적, 외적 사투가 있었는지 집중 조명한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 마흔을 코 앞에 둔 버지니아 울프
2. 엘리엇의 1월
3.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4. “나 자신과 왠지 동떨어진 기분”
5. “지금 글자로 엄청난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소.”
6. “소설 없이 & 소설 한 편 쓸 능력 없이”
7. “여느 때와 같은 기막힌 열정”
8. “세상에 굴하지 않는 잉글랜드인”
9. “늘 곁에 친구가 있다는 걸 잊지 말게.”
10. “지난 일요일에 엘리엇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그의 시를 읽었네.”

(이하 생략, 총 17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빌 골드스타인(Bill Goldstein)은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CUNY Graduate Center)에서 근세 영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뉴욕타임스』, 『스크리브너(Scribner)』에서 편집장으로 일했다. 특히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도서’ 부문 초기 편집자를 맡았다. 2000년부터는 NBC 텔레비전 프로그램 ‘Weekend Today in New York’에 출연하여 도서 비평가로 활약하고 있다.

제목 : QUANTUM DNA HEALING

가제 : 쿼텀 DNA 치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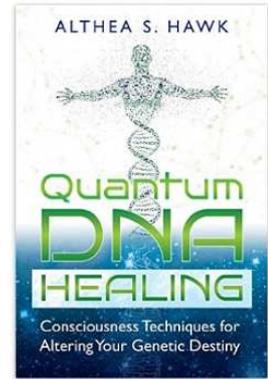
저자 : Althea S. Hawk

출판사: Bear & Company

발행일: 2017년 4월 4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건강



- *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유전자 발현을 의식과 양자 에너지로 조절하는 새로운 치유법
- * 저자가 실제 경험한 변화를 토대로 양자물리학과 유전학에 담긴 놀라운 치유 효과를 소개한 책

인간이 뇌기능을 10 퍼센트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전자에는 무수한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지만 발현의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건강을 증진시키고 개선시키는 유전자는 발현되도록 하고 반대로 병을 일으키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아야 한다. 과연 이런 조절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을까? 해로운 영향을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잠들어 있고 자연 치유력을 한껏 높여줄 유전자는 잠에서 깨어나 활성화되도록 하는 일이 가능할까? 암이라는 무서운 진단을 받고 온갖 치유법을 찾아 헤매던 저자는 양자물리학에서 그 해답을 찾아, '쿼텀(양자) DNA 치유법'으로 마침내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 어쩌면 그 어떤 약이나 치료보다 치유 효과가 강력한 DNA 본연의 특성을 바꾸는 일, 그 믿기 힘든 방법을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다.

저자가 '재암호화'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DNA 중 특정한 부분을 활성화시켜 우리 몸이 어떤 방향으로 기능해야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생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일깨우는' 것이 목표다. DNA에 이미 그러한 정보가 마치 컴퓨터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정보처럼 이미 다 저장되어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때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와 그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일깨우는 도구, 즉 인체의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을 관장하는 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쿼텀 DNA 치유법'이다.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해도 사실 인체의 생리학적 기능은 외부 환경의 양자 에너지와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며 그렇게 주고받은 신호를 토대로 DNA에 담긴 특정 정보가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못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만성 질환, 중증 질환인 것이다. 저자는 누구나 그러한 병에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지만, 개개인이 살아가는 물리적 환경은 물론 정신적인 믿음, 감정, 생각까지 유전자의 발현 여부와 활성 수준을 좌우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원리를 토대로 환경과 의식적 상태가 쿼텀 DNA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주고 그것이 생물학적 DNA의 반응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저자는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역으로 이용하여 DNA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DNA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면 유전자의

발현도 바꿀 수 있다. 그 결과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DNA 정보, 각인된 해로운 암호를 말끔히 지울 수 있다.

세포 의학, 유전학, 양자물리학, 인간의 의식에 관한 연구를 총망라하여 병이 생기는 이유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양자 DNA와 생물학적 DNA라는 생소한 개념을 질병의 그 종합적인 발생 원인을 토대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어 저자가 암, 종양, 만성 염증, 독성 물질로 인한 건강 악화를 잇따라 경험하면서 세포의 이상 기능을 근원부터 없앨 수 있었던 DNA 재암호화 방식을 소개한다.

세포 단계보다 더 깊은 DNA 단계에서 병의 뿌리를 제거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참신한 건강서다.

<목차>

머리말. 질병의 근원을 없애라

1. 건강이 무너졌을 때
2. DNA의 진실
3. 양자와 생물학적 DNA
4. DNA와 양자 정보는 함께 작용한다
5. 무의식의 에너지가 DNA를 좌우한다
6. DNA에 잘못된 정보가 담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7. 에너지 정보와 물리적 반응
8. 의식을 활용한 치유
9. 의식을 틀로 활용하는 치유법
10. DNA 변화와 그로 인한 효과
11. 인류의 위대한 자원, 양자 정보

부록

<저자 소개>

알티아 S. 호크(Althea S. Hawk)는 과학과 공학을 공부하고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경험을 계기로 퀀텀 DNA 치유법을 발견했다. 이후 캐나다에서 건강 치유사로,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목 : EVOLVED ENTERPRISE

가제 : 진화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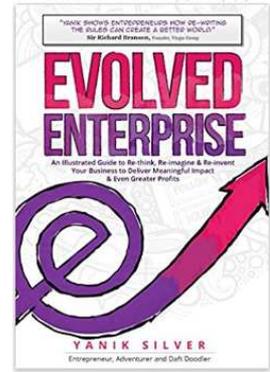
저자 : Yanik Silver

출판사: Ideapress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2월 28일

분량 : 225 페이지

장르 : 비즈니스



- * “산업계의 룰이 바뀌고 있는 시대, 저자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식을 제시한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Millionaire Master Plan*」의 저자 제임스 해밀턴
- * “이윤은 늘리고 세상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책” – 「*The Soul of Money*」의 저자 린 트위스트
- * 저자의 생생한 성공담과 코믹하고 매력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이 읽는 재미를 더하는 경영서

사업 성과가 지지부진할 때,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고 서점에 산더미처럼 쌓인 경영서들도 새롭게 변화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실천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작은 회사든 다소 몸집이 큰 기업체든 그 회사를 이끄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업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건 곧 오랜 세월 지켜온 신념은 물론 개인적인 삶 전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인 경우가 많다. 개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 ‘존재의 이유’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 성취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저자는 이처럼 선택하기 힘든 변화의 기로에 선 사업가들에게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이제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현재까지 우리가 목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 산업계 종사자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어놓을 수 있는 변화가 임박한 만큼 ‘변화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잘 변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때가 왔다. 저자는 산업계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우뚝 서지 못한다면 4-7년치 경쟁력을 몽땅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냉정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제자리걸음만 하는 사업을 단순한 변화가 아닌, 생물처럼 ‘진화’시키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평범하게 이런저런 거래를 하던 회사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회사로, 다시 모두의 예상과 기대치를 뛰어넘는 초월적 회사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보여준다.

우리 회사 브랜드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아끼는 팬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알아서 브랜드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어떨까? 이런 소중한 그룹이 형성되도록 기업이 먼저 나서서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각 부서, 각 팀이 지금보다 더 까다롭지만 훨씬 더 큰 성과를 가져올 과제도 무난히 해결할 수 있도록 경영자가 힘과 역량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투자한 만큼 혹은 비용을 들인 만큼 거두는 수준에서 벗어나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거래에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저자는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변화와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파도에 기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한다면 업계

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올라설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단순히 기술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사업체를 이끄는 경영자가 자신이 하는 일을 뿔속 깊이 사랑하는 것이 이 대대적인 재설계와 새로운 탄생의 씨앗임을 강조하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초보 경영자에게는 사업의 구상 단계부터 회사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라고 조언한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면서도 급변하는 사회에서 누구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재미 있게 소개한 경영서다.

<목차>

머리말

- 1장. 평범한 회사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회사, 가능성을 초월하는 회사로
- 2장. 진화형 기업의 3단계
- 3장. 진화형 기업을 만드는 열한 가지 비즈니스 모형
- 4장. 문은 열리게 되어있다
- 5장. 기업가 정신은 예술적 기교와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
- 6장. 당신의 ‘왜?’는 무엇입니까
- 7장. 특별해지는 법
- 8장. 잘 만들어진 기업
- 9장. 지역사회 규칙 하나. 브랜드를 사랑해주는 소비자단을 형성시켜라
- 10장. 문화가 중요한 이유
- 11장. 비전
- 12장. 깨어나라

<저자 소개>

야닉 실버(Yanik Silver)는 『Maverick Startup』, 『Instant Sales Letters®』, 『34 Rules for Maverick Entrepreneurs』 등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저술가이자 세계적인 기업가와 산업계 리더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Maverick1000 (Maverick1000.com)’의 창립자다.

제목: BEFORE THE CHANGE

가제: 폐경기, 직접 준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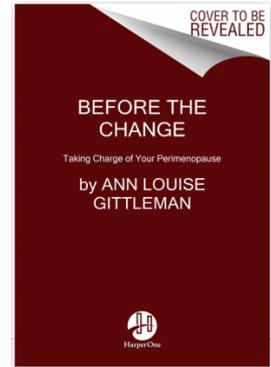
저자: Ann Louise Gittleman

출판사: HarperOne

발행일: 2017년 9월 5일

분량: 304 페이지

장르: 건강



- * 중년 여성의 최대 고민, 폐경기 전후로 찾아오는 증상을 바로 알고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
- * 호르몬 불균형, 갑상선 기능저하를 이겨내는 자연 건강법과 올바른 식습관 소개

폐경기가 많은 여성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이유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방대하고 유쾌하지 않은 결과 때문이다. 기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하고 성욕이 푹 떨어지고 잠을 설치고 쉬 지쳐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잘 먹던 음식도 소화가 잘 안되고 뱃살이 두툼해지질 않나 시도 때도 없이 얼굴과 몸에 열이 올라 벌개지고 심하면 우울증과 신진대사 문제까지 발생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폐경기 증상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합성 호르몬을 투여 받는 ‘호르몬 대체요법’이라고 알려졌다. 과연 사실일까?

2002년, 미국 전역에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는 폐경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조사한 ‘여성건강 연구사업’이 초기 단계에 뜻하지 않게 중단됐다. 더 길게 살펴보기도 전에 이미 호르몬의 인위적인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장정보다 훨씬 더 크고 다양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의 26 퍼센트는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졌고 41 퍼센트는 뇌졸중, 29 퍼센트는 심장질환 발생률이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기 전보다 더 높아졌다. 다리와 폐에 혈액이 응고된 사람도 두 배로 늘어났다. 그렇다면 폐경기 전후로 여성들을 괴롭히는 증상은 그저 견딜 수밖에 없을까? 안전한 치료법은 무엇일까? 20년 전, 중년 여성의 폐경기 건강법을 소개했던 저자는 그간 새로이 발견된 과학적인 사실과 치료법을 추가한 이 개정판에서 인체의 타고난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불쾌한 폐경기 증상을 이겨내는 방법을 소개한다. 많은 여성들이 느끼는 것처럼 폐경기는 인생의 내리막길이라 아니라 또 다른 단계일 뿐이고, 이 새로운 단계에 처음 진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준비 작업의 첫 번째는 올바른 지식을 쌓는 일일 것이다. 이에 저자는 호르몬 요법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소개하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호르몬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폐경기라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독자들은 자가 진단 퀴즈를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증상이 폐경기와 관련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저자는 비타민과 무기질, 허브, 천연 호르몬으로 여러 증상을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와 다양한 메뉴를 레시피와 함께 제시한다. 특히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의 섭취 방법을 꼼꼼하게 다루었다. 또한 콩을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섭취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문제점을 낱알이 밝히고, 호르몬 불균형과 직결되는 갑상선 기능저하와 이를 안전하게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극단적인 치료법 대신 생활 방식의 변화와 식생활 개선을 통해 그저 우울하게만 생각하는 폐경기를 유쾌하게 이겨내고 유방암, 골다공증, 심장질환 등 이 시기에 특히 취약해질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한 유익한 건강서다.

<목차>

- 1장. 미친 게 아니라 그냥 갱년기장애다!
 - 2장. 앤 루이스가 소개합니다! 갱년기 잡는 최고 실력자들
 - 3장. 탄수화물 조절하기
 - 4장. 섹시하고 날씬한 지방, 호르몬을 거스르지 않는 단백질
 - 5장. 섹시하고 날씬한 지방 섭취가 생활이 되려면
 - 6장. 갱년기에 맞는 비타민과 무기질
 - 7장. 천연 호르몬 크림
 - 8장.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게 하라
 - 9장.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 10장. 갑상선 길들이기
 - 11장. 에스트로겐, 식물성 에스트로겐, 생물 플라보노이드
- (이하 생략, 총 15장까지 구성)

<저자 소개>

앤 루이스 기틀먼(Ann Louise Gittleman)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영양학을 공부한 다이어트 전문가로 2007년 국내에도 번역 출간된 『팻플러시 다이어트(원제: Fat Flush Plan)』를 비롯한 서른 권이 넘는 저서를 발표했다. 미국 유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건강 전문가로 활약했고 「뉴욕타임스」, 「오프라 매거진」, 「코스모폴리탄」 등에도 소개됐다.

제목 : LIVING WITH DEATH

가제 : 죽음이 함께하는 삶

저자 : Sue Black

출판사: Transworld

발행일: 2018년 2월

분량 : -

장르 : 회고록



- * 수많은 죽음을 들여다본 법의학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생명과 삶, 죽음의 의미
- * 개인적인 경험과 살인사건, 전쟁, 자연재해, 인간의 폭력 등 다양한 죽음의 모습에 관한 과학적인 기록이자 삶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진정성 있는 회고록

해외 드라마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법의학 수사는 누구도 찾지 못한 단서를 예리하게 잡아내서 흉악한 범인을 찾아내고야 마는 짜릿한 면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일을 매일같이 하는 당사자는 어떨까? 최신 장비가 가득한 연구소에서 실험에 골몰하거나 살인 현장에서 사체를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드라마 속 주인공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진짜 범죄와 그 결과를 매일 들여다보는 사람들, 물리적 단서와 보이지 않는 심리적 단서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는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인 저자는 오랫동안 무수한 죽음을 접하며 느낀 생각과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한 사람의 걸음으로 드러난 정보가 이야기하는 의미, 인간의 본성, 심리적 변화 이 두 가지 모두에 깊은 호기심으로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과 인간을 끊임 없이 탐구하는 법의학자로서의 지나온 인생이 총 정리된 회고록이다.

저자는 자신의 삶이 늘 죽음과 함께 이어져 왔지만 그 죽음이 모두 같은 모습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 첫 번째는 법의학자라는 직업상 만나는 죽음이다. 살해당한 사람, 실종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체들과의 만남은 늘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수사기관, 변호사의 발 빠른 움직임과 누군가의 고통, 분노, 슬픔이 공존한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과 달리 이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고 희생자 뒤에 남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영혼을 잠식당할 만큼 견디기 힘든 충격을 안겨준다. 저자는 이 복합적이고 긴장감 가득한 죽음은 그 끔찍함과 절망감만큼 살아 있음을 감사하게 하고, 숨쉬는 한 순간 한 순간을 고마워하게 한다고 이야기한다.

저자의 인생에 늘 함께한 또 다른 죽음은 장기기증을 결심한 사람들의 고귀한 죽음이다. 세상을 하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희생 정신을 발휘하는 이 장기기증자들의 결단은 죽음도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아직 미래가 더 많이 남아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 사뭇 다른 두 가지 죽음은 저자가 개인적으로 겪은 가슴 아픈 죽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 부당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 친구의 죽음이 남긴 흔적과 그로 인해 떠올린 무수한 생각들을 저자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다.

어쩌면 저자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만큼 다양한 죽음을 목격하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사고로, 질병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경우와 더불어 살인, 범죄사건, 폭력, 전쟁, 자연재해로 인한 죽음까지 저자는 모든 각도에서 인간사의 마지막 모습을 들여다본다. 죽음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법의학에서 유전적인 형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동시에 태어난 이후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몸에, 또 정신에 새롭게 각인된 특징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한 부분은 범죄 소설 못지 않게 흥미진진하다. 무겁게만 느껴질 수 있는 죽음이라는 소재를 독창으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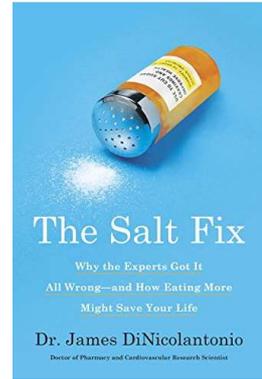
<목차>

- 소제목 미정, 총 13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수 블랙(Sue Black)은 해부학자, 범죄 인류학자로 세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던디 대학교의 해부·인체식별 센터(Centre for Anatomy and Human Identification)와 리버풀 법의학 연구센터(Leverhulme Research Centre for Forensic Science) 대표를 맡고 있다. 1999년 영국 법의학수사팀이 코소보에서 실시한 대규모 사체발견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영국 전역의 대형 범죄 사건 수사에 참여해 왔다. 이 일로 업적을 인정 받아 대영제국 4등 훈장을 받고 2008년에는 왕립 인류학연구소로부터 루시 메어 메달을 수여 받았다. BBC 다큐멘터리 등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했다.

제목 : THE SALT FIX
가제 : 소금으로 해결하라
저자 : James DiNicolantonio
출판사: Harmony Books
발행일: 2017년 6월 6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건강



- * “저자는 우리가 소금에 관한 떠들썩한 광고와 과장된 정보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그레인 브레인」의 저자 데이비드 펄머터
- * “소금 섭취를 둘러싼 수많은 오해를 깨뜨린 훌륭한 책. 반드시 읽어야 한다.” – 영국 국가 비만 포럼 자문위원회, 심혈관 전문의 아심 말호트라(Aseem Malhotra) 박사

건강에 아예 무관심한 사람이 아닌 이상,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못 들 어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대대적인 외침은 수시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기사 제목으로나, 보건 기관이 실시하는 건강 캠페인으로 자주 접할 수 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소금의 양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소위 ‘건강 지침’에서 는 티스푼 하나 정도 이상, 구체적으로는 나트륨 기준으로 하루 2,300 밀리그램 이상은 먹으면 안 되고 이마저도 노인이나 고혈압 환자는 더 줄여서 나트륨 1,500 밀리그램 미만, 티스푼 2/3 정도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 미국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나트륨 섭취량에 신경 쓰고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25 퍼센트 가량은 의료 전문가에게서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말 소금은 적게 먹을수록 건강에 이로울까? 저자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굳어버린 소금에 관한 이 인식을 완전히 뒤엎는 주장을 이 책에서 펼친다. 소금을 적게 먹으면 오히려 병이 생기고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저자의 파격적인 주장은 심장 질환을 비롯한 만성 질환의 진짜 주범은 설탕이라는 설명으로 이어진다. 현재까지 과학계에서 발표된 소금과 혈압, 심장 질환의 관계에 관한 500편 이상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저자는 이 당황스러운 결과를 실제로 확인했다고 설명하면서 건강한 대부분의 사람은 소금 섭취량을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단언한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무기질이다. 중요한 것은 인체가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금도 적당량이 균형 있게 공급되는 것이지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소금에는 ‘중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따라다니며 담배처럼 끊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저자는 지방이 비만의 주범으로 여겨지다가 최근 들어 그 오해가 풀리고 생선과 아보카도, 올리브 등 건강한 지방의 섭취가 오히려 권장되는 흐름으로 바뀐 것처럼 소금 역시 이제 오해를 풀어줄 때가 됐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단 음식, 탄수화물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체내에서는 마치 밥

을 못 먹은 것처럼, 반쯤 굶은 상태라는 신호가 분비되기 시작한다. 결국 설탕과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면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비만, 인슐린 저항성, 제 2형 당뇨,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질환, 고혈압과 같은 문제가 시작된다. 줄여야 하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며, 소금을 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섭취하면 수면 문제나 몸에 활력이 없는 문제, 집중력, 생식 기능, 성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건강하게 소금을 제대로 다시 찾아서 먹는 식습관이 왜 필요한가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저자는 올바른 종류의 소금을 인체에 필요한 양만큼 잘 먹는 식생활을 구축할 수 있는 5단계 식단개선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소금이 심장 질환의 원인이라는 해묵은 오인을 풀고 탄탄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심장은 물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한 유익한 건강서다.

<목차>

머리말. 소금 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1장. 하지만 소금이 고혈압을 만드는 원인 아닌가요?

2장. 인간은 소금을 먹어야 산다

3장. 소금과의 전쟁 – 어쩌다 이 백색 결정이 마녀사냥의 주인공이 되었나

4장. 심장병의 진짜 원인

5장. 굶주리는 신체

6장. 소금을 통한 회복: 소금이 부족하면 설탕 중독이 시작된다

7장. 꼭 필요한 소금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8장. 소금으로 해결하라: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라

맺음말. 올바른 소금을 찾아서

<저자 소개>

제임스 디니콜란토니오(James DiNicolantonio)는 심혈관 전문가이자 약학 박사로서 미국 세인트 루크 중부 심장연구소(Saint Luke's Mid America Heart Institute) 소속의 세계적인 건강, 영양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의학계 학술지에 200여 편의 논문을 저자, 공저자로 발표하였으며 「Progress in Cardiovascular Disease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harmacology & Toxicology」 등 여러 학술지의 편집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